

4월의 기도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6년 4월 6,7일 대만 카오슝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C3 Church, Victory Life Center, (주) 풍진화학, 김대수, 김선인, 김정환, 나인규, 박예립, 안희순, 오현주, 원소선, 이형춘,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간절히 기도하라

미국의 유명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 소설의 작가 마가렛 미첼은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이후에 7년간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 다녔지만 번번히 딱지를 맞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고 봉치를 사장에게 건네주며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귀찮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은 원고를 받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속으로는 ‘바쁜 내가 무명의 작가가 쓴 이런 원고를 읽겠는가?’하고 기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기차 안으로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보는 마가렛 미첼이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 주세요!”라고 보낸 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은 웃으면서 전보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전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역시 “제발 내 원고를 읽어 주세요!”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같은 전보가 계속 왔습니다. 출장 가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전보가 왔습니다. 그 사장은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고를 안 읽어 주면 이런 전보가 한평생 따라오겠다. 한번 읽어나 보자’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가 있고 감동이 되어서 새벽까지 잠을 안자고 읽었습니다. 그 원고를 출판한 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입니다. 결국 소설이 영화화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집념에 감동해서 그 사장이 원고를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집념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두 응답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시드니·퍼스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회



는 목회자들이 참석 대상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대조동 개밭에서 5명의 성도로 시작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게 된 씨앗이 바로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면 성령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꿈꾸는 것을 시인하면 입술의 고백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 2월 25일 오후에는 C3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조용기 목사는 삶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성령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생각과 꿈, 믿음과 입술의 긍정적인 고백이라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의 사람 요셉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속의 은혜를 얻고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강의에 앞서 C3교회 담임 필 프랭클 목사와 현장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킬 때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필 프랭클 목사가 묻자 조용기 목사는 “대조동 서대문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50여 년간의 목회사역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벽에 일어나 3~4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은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달리는 세계적인 목회 스승을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C3교회에서 열린 목회 세미나와 부흥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간단, 명료하지만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평신도 설교는 “올해 하나님이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됐다.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C3교회 투게라 성전에서 사역하는 필 올필드(Phil Olfield)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50년간의 목회적 경험 간증이 큰 도전이 됐다.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설교는 감동적이었다. 목회자이지만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며 세미나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꿈과 비전을 품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 구하라. 긍정적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꿈을 품은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오후 호주 시드니 C3교회(Christian City Church·담임 필 프랭클 목사)에서 열린 목회 세미나(Leaders Table)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꿈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C3교회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C3교회는 물론 시드니 등 호주 전역에서 사역하



#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5절>

고, 고마운 마음에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 받고도 아홉 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가던 자신의 길을 가버렸으니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감사로 나아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 2. 마귀를 쫓아내는 감사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귀와 더불어 불평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려고 하자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쫓아버리시고, 수고의 고통과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좋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좋은 하찮든 “예”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절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말하면 결국 마귀의 울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 3.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감사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병 고침 받은 것을 감사하고,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를 입에 붙여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원이 만족하게 되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

감 같이 올라가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혹여 나빠 보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꼭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호주 성회에 갔을 때 신문 기자가 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중에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속도는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었지만 나이가 80세를 넘고 보니 응답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꿈꾸고 믿음으로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자 그 기자가 “지금부터 무얼 꿈꾸느냐”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한도 내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부르짖지만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감옥의 문이 열릴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마음의 분노와 속박에서 해방되고, 우울과 슬픔에서 해방이 되고, 좌절과 절망에서 해방이 되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언뎌 풍성히 연계 하길 원하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앉아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고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 크신 이름이 온 천지에 알려지도록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돌봐주시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송축할 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감사 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 개개인이 변화될 때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며, 국가도 변화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1. 잊지 말아야 할 감사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이란 오늘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자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흐르게 하였고,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향치니 메추라기를 데려오사 손에 잡히도록 팔팔 날아다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잡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영화로움을 느끼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아주 기뻐집니다.

호주 성회에서 ‘프링글 박사’가 저를 소개하는데 내내 자기 선생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호주에서 첫째, 둘째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덕분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뿌듯하고, 설교할 때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할 것을 두 마디 하게 되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하와이목회자기도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하와이목회자기도회가 3월 15일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에서 현지 한인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순복음북미총회(총회장 양승호 목사)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꿈을 심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영의 세계

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중요하다. 항상 입으로 꿈을 시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하와이기독교총연합회장 김홍용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4

차원의 영성이 미국과 해외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더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번 조용기 목사의 하와이 방문은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약 9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연합과 부흥을 소망하는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됐다.

또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와 영목회(회장 고경환 목사) 제자들, 4차원영성 글로벌 포럼(회장 김영도 장로) 회원들이 함께했다.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퍼스 빅토리 라이프 센터 부흥성회



호주 서부 도시 퍼스의 최대 교회로 성장한 빅토리 라이프 센터(VLC-담임 마가렛 코트 목사)가 지난 2월 23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성회는 빅토리 라이프 센터가 개최한 성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해 교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성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입

장을 준비했고, 성회 시작과 함께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대성전은 물론 임시 성전으로 만든 체육관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넘쳐났다.

조용기 목사가 빅토리 라이프 센터를 방문한 건 2013년 20개국 기독교 리더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용기 목사는 “죽을 위기에 있던 나에게 예수님은 희망으로 다가오셨다. 신유를 경험한 내가 세계 최대 교회를 목회하고 세계를 교구삼아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건 오직 긍정적인 믿음을 주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

가 꿈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또 퍼스 최대 교회로 성장한 빅토리 라이프 센터 마가렛 목사와 성도들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흥에 대한 꿈을 품고 전진해 나가라”며 교회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조용기 목사의 저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읽고 교회성장에 대한 꿈을 가졌던 마가렛 코트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가렛 코트 목사는 “다음 세대들이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과 장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워가길 기대하며 성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